

# 심층분석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2026.04.14

### 제1장. 산업(업종) 분석: 특수강 산업의 구조와 흐름

#### 1-1. 특수강 산업의 정의와 범위

특수강(特殊鋼, Special Steel)은 일반 탄소강에 니켈·크롬·몰리브덴·바나듐·텅스텐·코발트 등 합금 원소를 첨가하거나, 전기로(EAF) 정련·진공탈가스(VD/VOD)·특수 열처리·정밀 단조 등 고도화된 공정을 적용하여 내식성·내열성·고강도·내마모성·내피로성 등 특수한 물성을 부여한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을 총칭한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특수강'이 단일 제품이 아니라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제품군이라는 점이다. 주요 제품군으로는 스테인리스강(STS), 공구강, 베어링강, 스프링강, 탄소합금강, 내열강, 초내열합금(Superalloy), 고망간강, 쾌삭강 등이 있으며, 각각의 제품은 화학 성분, 열처리 조건, 가공 방법에 따라 수백~수천 가지 세부 규격(Grade)으로 나뉜다.

특수강이 범용 강재와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맞춤형 물성 설계'에 있다. 건설용 철근이나 구조용 H형강처럼 대량 생산·표준화가 핵심인 범용 강재와 달리, 특수강은 최종 수요 산업의 구체적인 요구 사양(인장강도, 항복강도, 경도, 내식성, 내열온도 등)에 맞춰 합금 배합과 공정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 밸브용 특수강은 800°C 이상의 고온에서도 강도와 내산화성을 유지해야 하고, 항공기 터빈 블레이드용 초내열합금은 1,650°C에서도 크리프(creep) 변형이 억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높은 기술적 요구 수준이 특수강 산업의 진입장벽을 형성하며, 동시에 고부가가치의 원천이 된다.

특수강의 활용 범위는 사실상 현대 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엔진 부품, 변속기 기어, 크랭크 샤프트, 서스펜션 스프링, 베어링 등에 사용되며,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제트엔진 터빈 디스크·블레이드, 착륙기어, 기체 구조재, 로켓 추진체 부품에 활용된다. 에너지 산업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압력용기, 석유·가스 시추용 강관(OCTG), 풍력발전 터빈 샤프트, 수소저장용기에 쓰이며, 조선 산업에서는 선박 프로펠러 샤프트, 엔진 부품, LNG 탱크 소재로 사용된다. 방위산업에서는 전차 장갑판, 포신, 미사일 구조재, 잠수함 내압 선체에 핵심 소재로 투입된다. 이처럼 특수강은 단순한 철강 제품이 아니라, 첨단 산업의 '뿌리 소재'로서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 1-2.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와 핵심 수익 지점

특수강 산업의 가치사슬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원자재 조달**로, 철스크랩(고철)·합금철(페로크롬, 페로니켈, 페로몰리브덴 등)·합금 원료(니켈, 크롬, 코발트, 텅스텐 등)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특수강은 범용강 대비 합금 원료의 비중이 매우 높아, 니켈·크롬·코발트 등의 국제 시세 변동이 원가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STS 304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니켈이 원가의 30~40%를 차지하므로, LME(런던금속거래소) 니켈 가격의 등락이 곧바로 수익성을 좌우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제강**으로, 전기로(EAF)에서 철스크랩을 용해한 뒤, AOD(Argon Oxygen Decarburization)·VOD(Vacuum Oxygen Decarburization) 등 2차 정련 공정을 통해 목표 화학 성분으로 조정하고, 연속주조(CC) 또는 잉곳 주조(Ingot Casting)로 반제품(빌렛·블룸·잉곳)을 생산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합금 설계와 정련 기술이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며, 여기에 투입되는 기술적 노하우가 기업 간 경쟁력 차이의 핵심 원천이다. 세아창원특수강은 60톤과 100톤 전기로 2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강 능력 연 120만 톤은 국내 STS 봉강·선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규모다.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세 번째 단계는 **압연·가공**으로, 반제품을 봉강(Bar)·선재(Wire Rod)·강관(Pipe/Tube)·단조품(Forging) 등 최종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이다. 열간 압연, 냉간 인발, 열처리(담금질·뜨임·어닐링·고용화처리), 산세(Pickling), 연마(Grinding), 비파괴검사(NDT) 등 다양한 후공정이 포함된다. 특히 항공우주·원자력 등 고신뢰성 산업에 납품되는 제품은 단조·열처리·검사 공정이 매우 정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 후공정의 기술력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결정한다.

네 번째 단계는 **최종 수요산업 납품**으로, 자동차 OEM, 항공기 엔진 제작사, 에너지 설비 제조사, 방위산업체, 기계 부품 가공업체 등에 특수강 소재를 공급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고객사별 인증(예: 보잉 인증, 아람코 벤더 등록, 원자력 등급 인증 등)이 거래의 전제 조건이 되며, 한 번 인증을 획득하면 고객 전환 비용이 매우 높아 장기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된다. 이것이 특수강 산업의 또 다른 진입장벽이자 기존 기업의 경쟁 우위다.

가치사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수익 지표는 롤마진(Roll Margin)이다. 롤마진은 제품 판매 단가에서 원재료 투입 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이 마진이 넓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범용 STS 제품의 롤마진이 톤당 30~50만 원 수준인 반면, 항공우주용 초내열합금은 톤당 수백만~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다. 세아항공방산소재의 영업이익률이 19.1%에 달하는 것은 바로 이 고부가 제품 포트폴리오 덕분이다. 반면 범용 특수강의 영업이익률은 2~3%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품 포트폴리오의 고도화, 즉 '범용에서 프리미엄으로의 전환'이 업계 모든 기업의 전략적 과제인 셈이다.

### 1-3. 시장 규모와 성장 전망

글로벌 특수강 시장은 정의 범위와 리서치 기관에 따라 규모 추정이 다소 상이하지만, 대체로 2024년 기준 약 1,900억~2,450억 달러(한화 약 280조~360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Business Research Insights(BRI)는 2024년 약 2,451억 달러에서 2033년 3,162억 달러(약 465조 원)로 CAGR 2.87% 성장을 전망했으며, IMARC 그룹은 2025~2033년 연평균 5.28% 성장을 예측했다. GII(Global Information Inc.)는 특수강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6.1%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관 간 수치 차이는 특수강의 정의 범위(STS 포함 여부, 합금강 범위 등)에 기인하지만, 공통적으로 항공우주·전기차·신재생에너지가 구조적 수요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이 전체 소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 시장이며, 중국이 전 세계 특수강 생산량의 약 39.2%(약 1.1억 톤)를 차지하여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1위다. 유럽은 약 6,500만 톤, 북미는 약 4,200만 톤 규모다. 2024년 글로벌 특수강 생산량 총합은 2.8억 톤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2024년 조강 생산량 약 6,360만 톤(세계 6위)을 기록했다. 이 중 전기로강이 약 30%(1,970만 톤)를 차지하는데, 특수강은 대부분 전기로에서 생산되므로 한국의 전기로 비중은 곧 특수강 산업의 기반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한국의 특수강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약 12%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이를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10대 핵심 특수강 품목에 2,000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특수강 산업이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적 신호이며, 세아창원특수강 같은 국내 특수강 전문 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사업 환경을 의미한다.

### 1-4. 최근 3~5년간 핵심 트렌드 — 탈탄소·전기로 전환

철강 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대한 메가트렌드는 탈탄소(Decarbonization)다. 한국 철강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1억 톤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의 16.7%를 차지하며, 이는 발전·에너지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6년부터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 본격 시행되면, 유럽으로 수출하는 모든 철강 제품에 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이는 고로(용광로) 기반의 일관제철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에 막대한 비용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부담을 지우는 반면, 전기로 기반 기업에는 상대적 수혜를 가져다준다.

전기로는 철스크랩(고철)을 전기 에너지로 용해하여 강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철광석을 코크스로 환원하는 고로 대비 CO<sub>2</sub> 배출을 약 75% 감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대형 철강사들이 앞다퉀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광양에 약 6,400억 원을 투입하여 연산 250만 톤 규모의 초대형 전기로 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포스코는 독자적 수소환원제철 기술 'HyREX'를 개발하여 2030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제철도 당진 제1고로를 전기로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전기로 전환 트렌드는 세아창원특수강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설립 초기부터 전기로 기반의 제강 체제를 갖추고 있어, 고로 전환에 따른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 없다. 오히려 "원래부터 저탄소 공정"이라는 점을 ESG 경쟁력으로 어필할 수 있으며, CBAM 시행 이후 유럽 수출 시 가격 경쟁력에서 고로 기반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다만 전기로도 전기 소비량이 많아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가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으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아직 10% 미만인 점은 해외 경쟁사 대비 약점이 될 수 있다.

### 1-5. 최근 3~5년간 핵심 트렌드 — 항공우주·방산·전기차 수요 구조적 성장

특수강의 전방 수요 산업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분야는 항공우주·방산이다. 글로벌 항공우주용 특수합금(Superalloy) 시장은 2032년까지 약 102조 원(연 8.5% 성장)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민간 항공기 수요 증가, 우주 발사체 산업 급성장, 방위비 지출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수주 잔고(backlog)는 합산 1만 4,000대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스페이스X를 필두로 한 민간 우주 산업도 연 100회 이상 발사를 달성하며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이러한 수요는 니켈기 초내열합금(Inconel, Waspaloy, Hastelloy 등), 티타늄 합금, 고강도 스테인리스강 등 고부가 특수강에 대한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전기차(EV) 시장의 성장도 특수강 수요의 중요한 동인이다. 2024년 전기차 글로벌 생산량은 1,1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이에 따라 EV 구동모터·배터리 하우징·구조재에 사용되는 특수강 소비량이 약 1,640만 톤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차체 경량화가 중요하므로, 인장강도 980MPa 이상의 초고강도강(Advanced High-Strength Steel, AHSS)이 신차의 68%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배터리 케이스·하우징에 고강도·내충격 특수강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도 중요한 수요처다. 풍력발전 터빈의 메인 샤프트·기어박스·타워에는 고강도 합금강이 대량 사용되며, 수소경제 인프라(수소저장탱크·수전해설비·수소배관)에는 내수소취성 특수강이 필수적이다. 2024년 기준 풍력·태양광·수소 인프라에 소비된 특수강은 약 1,360만 톤으로 추산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따라 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1-6. 최근 3~5년간 핵심 트렌드 — 중국발 저가 공세와 보호무역

특수강 산업에서 가장 심각한 구조적 위협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저가 공세다. 중국은 2020년대 들어 내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내 철강 수요가 둔화되자, 잉여 생산량을 저가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2024년 기준 한국에 수입되는 특수강봉강의 92%가 중국산이며, 수입 단가는 전년 대비 24%나 하락했다. 수입량도 67만 톤으로 2022년 대비 50%가 급증하여, 국내 특수강봉강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은 2025년 8월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특수강 봉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단행했다. 이 제소는 국내 특수강 업계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통상 이슈이며, 향후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세아창원특수강의 범용 STS 봉강 사업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글로벌 차원에서도 보호무역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EU는 중국산 냉연 스테인리스강에 24.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부과한 철강 관세(232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 환경은 한편으로는 한국 특수강 기업의 수출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유럽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한 기업에는 기회가 된다. 세아창원특수강이 미국 텍사스에 SST 공장을 건설하는 전략적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 1-7. 최근 3~5년간 핵심 트렌드 —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팩토리

철강 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 900개 이상의 제강 공장에서 AI 기반 합금 배합 최적화, 예측 정비(Predictive Maintenance),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이 도입됐다. 특수강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제품 규격의 다양성이 높아 공정 조건 최적화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수백 가지 합금 조성 및 열처리 조건의 조합에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도출하는 데 AI-머신러닝이 큰 효과를 발휘한다.

국내에서는 동국제강이 'Steel for Green' 전략 아래 하이퍼 전기로 개발과 스마트팩토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포스코도 AI 기반 공정 최적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세아창원특수강 역시 MES(제조실행시스템)·ERP 고도화를 통해 생산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총무 직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시설관리·자산관리·에너지관리 등에서 IoT 센서, BMS(Building Management System), FAMS(Fixed Asset Management System) 등 디지털 도구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 1-8. 주요 플레이어와 경쟁 구도

국내 특수강 시장은 크게 세 개의 제품 영역으로 나뉘며, 각 영역별로 주요 플레이어가 다르다. STS(스테인리스) 봉강·선재 영역에서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국내 유일의 일관 생산업체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합금강 봉강·선재 영역에서는 세아베스틸이 내수 1위, 현대제철이 2위를 점하고 있다. STS 판재(열연·냉연) 영역에서는 포스코가 열연 1위, 현대비앤지스틸이 냉연 전문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봉형강·후판·클래드강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종합 철강사로, 최근 DKLAD 브랜드로 특수강 클래드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Outokumpu(핀란드), Acerinox(스페인), Aperam(룩셈부르크)이 STS 분야 3대 메이저이며, Nippon Steel(일본), JFE Steel(일본), voestalpine(오스트리아)이 합금강·특수강 분야의 주요 기업이다. 중국에서는 Tsingshan Group, TISCO(太原鋼鐵), Baowu Steel이 막대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Nippon Steel의 US Steel 인수(149억 달러, 2025년 6월 완료)로, 이는 글로벌 철강 업계의 대규모 재편을 상징하는 일이다. 이러한 글로벌 재편 속에서 세아그룹은 미국 SST 공장, 사우디 SGSI 합작 등을 통해 '글로벌 니치 플레이어'로서의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있다.

### 1-9.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산업 분석에서 도출되는 지원 전략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특수강 산업이 '범용에서 프리미엄으로', '내수에서 글로벌로', '탄소집약에서 저탄소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는 구조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성장하는 산업이다"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가 이 회사에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둘째, 중국발 저가 공세라는 당면 위기와 항공우주·방산이라는 성장 기회가 공존하는 양면적 환경을 인식해야 한다. 이 양면성이야말로 세아창원특수강이 왜 전략적 전환을 가속화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다. 셋째, 전기로 기반 기업의 탈탄소 우위는 총무 직무에서도 시설관리·에너지관리·환경 규제 대응과 연결되는 실무적 함의가 있다. 환경부 점검 대응, 배출권 거래, ESG 보고 등이 총무 업무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2장. 경쟁사 비교와 세아창원특수강의 포지셔닝

#### 2-1. 세아베스틸 — 그룹 내 형제회사이자 최대 시너지 파트너

세아베스틸은 세아창원특수강과 함께 세아베스틸지주 산하의 핵심 자회사로, 탄소합금강 봉강 시장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 군산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으며, 연간 제강능력 약 310만 톤, 직원 수 약 2,400명 규모의 대형 제강사다. 2024년 매출은 약 2조 원 수준이다. 세아베스틸은 자동차용 합금강봉강, 산업기계용 봉강, 원자력용 특수합금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13,000톤급 대형 자유단조 프레스를 보유하여 대형 단조품(발전소 로터, 선박 크랭크샤프트 등) 생산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세아창원특수강과 세아베스틸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지원자에게 중요하다. 양사는 세아베스틸지주 아래 제품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추구한다. 세아베스틸은 탄소합금강 중심, 세아창원특수강은 STS(스테인리스)강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원자재 공동 구매, R&D 기술 교류,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 공유 등에서 협력한다. 또한 세아항공방산소재(구 세아FS)는 초내열합금 단조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자매회사로, 세아창원특수강이 생산한 초내열합금 소재가 세아항공방산소재의 단조 공정을 거쳐 최종 항공엔진 부품으로 완성되는 수직 계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그룹 내 가치사슬 통합은 세아 그룹의 핵심 경쟁 우위 중 하나다.

#### 2-2. 현대제철 — 현대차그룹의 캡티브 수요를 기반으로 한 대형 경쟁사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의 계열 제철사로, 당진에 일관제철소(고로 2기)와 인천에 전기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조강 생산량은 연간 약 2,400만 톤으로 국내 2위(포스코 다음)이며, 이 중 특수강봉강·선재 부문은 연간 약 150만 톤 규모다. 현대제철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는 현대차·기아의 캡티브(Captive) 수요, 즉 그룹 내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기아가 연간 약 7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므로, 엔진·변속기·서스펜션 등에 사용되는 합금강봉강의 안정적 소비처가 보장된다.

다만 현대제철의 약점으로는 2018년에 발생한 특수강봉강 제품 품질 이슈(크랙 문제)가 꼽힌다. 당시 일부 고객사에 납품된 합금강봉강에서 표면 결함이 발견되어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으며, 이후 품질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대제철은 STS(스테인리스)강 봉강은 생산하지 않으므로, 세아창원특수강과는 STS 영역에서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 양사의 경쟁은 주로 탄소합금강 봉강 시장에서 세아베스틸과 현대제철 사이에서 발생한다.

#### 2-3. 현대비앤지스틸 — STS 냉연강판 전문의 니치 플레이어

현대비앤지스틸은 STS 냉연강판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연매출 약 7,954억 원(2024년), 직원 약 1,200명 규모다. 경남 창원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어 세아창원특수강과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주력 제품은 STS 400계(페라이트계) 냉연강판으로, 가전·주방기기·건축자재·자동차 배기계 등에 사용된다. 또한 300계(오스테나이트계) 냉연강판도 생산하며, 최근에는 연료전지 분리판용 초박판 스테인리스강 등 고부가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비앤지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사 모두 STS를 주력으로 하지만,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제품 형태가 다르다. 세아창원특수강은 STS '봉강·선재'(Bar & Wire Rod), 즉 단면이 원형·사각형인 봉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반면, 현대비앤지스틸은 STS '냉연강판'(Cold-Rolled Sheet/Coil), 즉 얇은 판 형태의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양사는 직접 경쟁보다는 동일 STS 원자재 시장(니켈·크롬 등)을 공유하고, 동일 산업(STS) 내에서 각각의 니치를 점유하는 관계에 가깝다. 현대비앤지스틸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3배 수준으로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있으며, 이는 STS 냉연강판 시장 전반의 구조적 수익성 압박을 반영한다.

### 2-4. 동국제강 —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의 종합 철강사

동국제강은 봉형강·후판·철근·클래드강판·컬러강판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종합 철강사다. 인천과 포항에 주요 생산기지를 두고 있으며, 연간 조강 생산량은 약 360만 톤이다. 동국제강의 가장 큰 특징은 제품 다각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다. 건설용 철근·H형강 수요가 부진할 때는 후판·조선용 강재로 보완하고, 최근에는 'DKLAD' 브랜드로 클래드강판(이종 금속 접합 강판)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클래드강판은 탄소강과 스테인리스강을 접합하여 내식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제품으로, LNG 저장탱크, 석유화학 압력용기 등에 사용된다.

동국제강은 또한 'Steel for Green' 전략 아래 하이퍼 전기로 개발, 스마트팩토리, 수소환원제철 기술 R&D 등 미래 기술 투자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건설경기 의존도가 높은 제품 포트폴리오(철근·형강 비중)는 국내 건설 경기 장기 침체 국면에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아창원특수강과는 STS 봉강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지 않으며, 양사의 고객군도 대부분 겹치지 않는다.

### 2-5. 한국특수형강 — 특수형강 틈새시장의 강소기업

한국특수형강은 특수 형강(이형봉강, 특수 단면 봉강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강소기업으로, 세아창원특수강이나 세아베스틸 같은 대형사와는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특수 형강이라는 극히 좁은 니치 시장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시트 레일,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 산업기계용 이형봉강 등이 주력 제품이다. 이 기업을 경쟁사 분석에 포함한 이유는, 특수강 산업에서 '니치 전문화'가 얼마나 유효한 전략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세아창원특수강의 전략적 방향(STS 봉강 독점 + 항공우주 니치 확장)과 일맥상통하는 포인트가 있다.

### 2-6. 세아창원특수강의 전략적 포지셔닝 — '니치 프리미엄 + 볼륨 복합 전략'

위의 경쟁사 분석을 종합하면, 세아창원특수강의 전략적 포지셔닝은 '니치 프리미엄 + 볼륨 복합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는 국내 유일의 STS 봉강·선재 일관 생산업체라는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범용 STS 시장에서 볼륨을 확보하고 있다. 연간 120만 톤 제강능력 대비 2024년 실제 조강생산량은 49.9만 톤으로 가동률이 46.1%에 그치고 있지만, 이는 수요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설비 능력 자체는 충분하다. 이 볼륨 기반 위에, 항공우주·방산용 초내열합금이라는 초프리미엄 니치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수익성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항공우주·방산 매출 비중을 현재 약 3%에서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포지셔닝의 핵심 강점은 세 가지다. 첫째, 국내 STS 봉강·선재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안정적 기반 매출을 보장한다. 둘째, 항공우주·방산이라는 초고부가 시장으로의 진출이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된다. 셋째, 미국 SST·사우디 SGSI 등 해외 생산거점 확보가 관세 장벽을 우회하고 현지 수요를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반면 약점은 범용 STS의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낮고(중국 저가 공세 영향), 항공우주 사업은 아직 매출 기여도가 미미하며 인증·양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 2-7. 최근 1~6개월 주요 이슈 상세

2025년 8월,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은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특수강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는 제소를 접수했다. 이 제소의 배경은 중국산 특수강봉강의 수입 급증이다. 2024년 기준 중국산 특수강봉강 수입량은 67만 톤으로 국내 수입의 92%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약 50% 급증한 수치다. 수입 단가도 전년 대비 24% 하락하여 덤핑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세아 측은 "중국산 저가 수입이 국내 생산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2026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세아창원특수강의 범용 STS 봉강 사업 수익성이 의미 있게 개선될 수 있다.

2025년 10월에는 세아창원특수강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엔진용 초내열합금 '와스팔로이(Waspaloy)' 초도품 납품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와스팔로이는 1,650°C의 초고온에서도 강도와 내산화성을 유지하는 니켈 기 초내열합금으로, 가스터빈 엔진의 터빈 디스크, 링 부품 등에 사용된다. 세아창원특수강이 이 소재의 국내 생산 기술을 확보한 것은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엔진용 핵심 소재의 국산화라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 이 초도품 납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용 엔진 및 민간 항공기 엔진 부품 사업과도 연계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2월에는 세아그룹이 세아창원특수강 신임 대표이사로 박건훈 전무를 선임했다. 박건훈 대표는 세아 그룹 내에서 오랜 기간 경영관리·전략기획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로, 취임 직후 "고부가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하고, SST·SGSI 등 해외 신규 사업의 정착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경영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 리더십 체제 아래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전략적 방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에는 미국 텍사스 SST(SeAH Superalloy Technologies) 공장의 준공 및 상업생산 개시, 사우디 SGSI(SeAH Gulf Special Industries, 아람코 합작) 공장의 상업 생산 개시가 예정돼 있다. SST 공장은 약 2,13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6,000톤 규모의 특수합금(초내열합금·티타늄합금) 생산기지로 건설됐으며, 록히드 마틴·스페이스X·보잉·GE에어로스페이스 등 북미 항공우주·방산 고객을 타겟으로 한다. SGSI 공장은 사우디아라비아 킹 살만 에너지파크(SPARK)에 위치하며, 아람코 계열 DUSSUR와의 합작으로 STS 무계목(Seamless) 강관을 생산한다. 중동 에너지 인프라 시장의 STS 강관 수요를 현지에서 직접 충족한다는 전략이다.

### 2-8.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경쟁사 비교에서 도출되는 핵심 시사점은, 세아창원특수강이 "국내 STS 봉강·선재 분야 유일무이한 일관 생산체제"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독점적 지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소서·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쟁사 대비 차별점을 설명할 때, 단순히 "1위다"가 아니라 "왜 다른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지"(진입장벽: 대규모 설비 투자, 장기간의 고객 인증, 합금 기술 노하우)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다. 해외 경쟁사와의 비교에서는 Outokumpu, Nippon Steel 등 글로벌 메이저 대비 규모는 작지만, 특정 니치(STS 봉강, 항공우주 초내열합금)에서 경쟁력을 구축하는 '강소기업형' 전략이라는 점을 짚어줄 수 있다.

## 제3장. 세아창원특수강 심층 기업 분석

### 3-1. 회사 연혁과 소유 구조

세아창원특수강의 역사는 1966년 한국종합특수강으로의 설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삼미특수강, 1997년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포스코에 인수되어 포스코특수강으로 재편됐다. 약 18년간 포스코 그룹 내에서 운영되다가 2015년 세아베스틸이 인수하면서 현재의 세아창원특수강으로 새 출발했다. 이 인수는 세아그룹이 탄소합금강(세아베스틸)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STS(스테인리스)강 역량을 더하여 '특수강 종합 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M&A였다.

소유 구조는 세아베스틸지주가 세아창원특수강 지분 100%를 보유하는 형태다. 세아베스틸지주는 코스피 상장사(종목코드: 001430)이며, 세아그룹의 철강·특수강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다. 세아그룹 전체 구조에서 보면, 세아홀딩스가 최상위 지주회사이고, 그 아래 세아베스틸지주(철강·특수강), 세아제강지주(강관·튜브), 세아상역(무역) 등이 배치되어 있다. 세아그룹은 이순형 회장이 이끌고 있으며, 2024년 그룹 전체 매출은 약 12조 원(2024년 추정)이며 재계 순위 42위 수준의 중견 대기업이다.

비상장사라는 점은 지원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다. 비상장이므로 개별 기업의 분기별 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으며, 재무 정보는 주로 세아베스틸지주의 연결재무제표나 보도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면접에서 재무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세아베스틸지주 연결 실적을 기준으로 답변하되 "세아창원특수강은 비상장 자회사이므로 별도 실적은 지주사 공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 3-2. 생산 설비와 기술 역량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적현산업단지 내 약 67만<sup>2</sup>m(약 20만 평) 부지에 위치한 세아창원특수강 공장은 제강부터 최종 출하까지 일관 공정을 갖추고 있다. 핵심 설비는 60톤 전기로와 100톤 전기로 2기로 연간 총 120만 톤의 제강능력을 보유하며, AOD(Argon Oxygen Decarburization) 정련로, 연속주조기(CCM), 소형 압연기(봉강·선재 겸용), 열처리로(광휘소둔로, 고용화처리로), 산세라인, 비파괴검사(UT/MT/ET) 설비 등이 일관 체제로 배치되어 있다.

기술 역량 면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1,650°C 초내열합금 용해·주조 기술을 국내 최초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기존 STS강의 용해 온도가 1,500°C 내외인 것에 비해 150°C 이상 높은 온도에서의 정밀 제어가 필요한 이 기술은 항공엔진용 와스팔로이, 인코넬 등 초내열합금의 국산화를 가능케 한 핵심 기술이다. 둘째, 진공용도용해(VIM)·진공아크재용해(VAR)·전기슬래그재용해(ESR) 등 특수 용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특수 용해 기술은 항공우주·원자력 등급의 초고품질 합금 생산에 필수적이며, 국내에서 이 세 가지 용해 기술을 모두 갖춘 기업은 극소수다. 셋째, 2,200톤급 단조 프레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 말까지 5,000톤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단조 프레스의 대형화는 항공엔진 터빈 디스크 같은 대형 단조품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핵심 설비 투자다.

인증 현황도 중요한 기술 역량 지표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아람코 전 구경 벤더 인증(2019년), AS9100 항공우주 품질경영시스템 인증(2021년), Nadcap 국제 항공·방위 특수공정 인증(2023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은 취득까지 수년이 소요되며, 한 번 확보하면 고객 전환 비용이 매우 높아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특히 AS9100과 Nadcap은 보잉·에어버스·GE에어로스페이스 등 글로벌 항공사들이 납품 조건으로 요구하는 필수 인증이므로, 이 인증 보유 사실 자체가 세아창원특수강의 항공우주 사업 진출의 기술적 기반을 입증한다.

### 3-3. 사업 구조와 재무 현황 — 2024년 실적 분석

2024년 세아창원특수강의 별도 매출은 1조 4,372억 원을 기록했다. 제품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봉강이 전체의 약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재가 약 36%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이다. 강관이 약 13%, 빌렛·강괴(B/T) 등 반제품이 약 6%, 기타가 약 1%를 구성한다. 봉강과 선재를 합치면 전체 매출의 80%에 달하며, 이는 세아창원특수강의 사업이 STS 봉강·선재에 극도로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2024년은 세아창원특수강에 극히 어려운 해였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1% 급감한 60.5억 원(영업이익률 0.4%)을 기록했다. 이 실적 악화의 원인은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첫째, 전방산업(건설·기계) 부진이다. 국내 건설 경기 장기 침체와 기계산업 수주 부진으로 범용 STS 봉강·선재 수요가 감소했다. 둘째, 니켈 가격 하락이다. LME 니켈 가격이 2022년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하면서 STS 제품의 판매 단가도 연동 하락했는데, 원가 절감 속도가 판가 하락을 따라가지 못해 롤마진이 축소됐다. 셋째, 중국산 저가 물량의 대거 유입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산 특수강봉강 수입이 급증하면서 내수 경쟁이 심화됐다.

조강생산량은 49.9만 톤으로 연간 제강능력 120만 톤 대비 가동률이 46.1%에 불과했다. 이 가동률은 철강업에서 경제적 손익분기점(통상 70~8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고정비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한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이 낮은 가동률은 반대로 '수요 회복 시 추가 투자 없이도 매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 3-4. 재무 현황 — 2025년 극적 반등

2025년 실적은 극적인 반전을 보여줬다. 세아베스틸지주 연결 기준 2025년 매출은 3조 6,522억 원(전년 대비 +0.4%), 영업이익은 1,024억 원(+95.6%), 당기순이익은 617억 원(+204%)을 달성했다. 특히 세아창원특수강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1조 3,991억 원, 영업이익 539억 원(전년 대비 +789.6%, 즉 약 9배 증가)이라는 놀라운 반등을 기록했다. 이 반등의 주요 동인은 롤마진 개선(니켈 가격 안정화와 판가 회복), 고부가 제품(항공 우주용 합금, 에너지용 강관 등) 비중 확대, 생산 최적화를 통한 원가 절감이었다.

이 실적 변동성을 총무 직무 관점에서 해석하면, 철강업은 구조적으로 '호불호 사이클이 극심한 산업'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영업이익이 60억에서 539억으로 한 해 만에 9배 변동하는 산업에서, 불황기에는 비용 절감·자산 효율화가, 호황기에는 증가하는 인력·물량에 맞춘 인프라 확장 지원이 총무의 핵심 과제가 된다. 즉 총무는 사업 사이클에 따라 업무의 강조점이 달라지며, 이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요구된다.

### 3-5. 중장기 전략 방향 — '2030 Steel & Metal 종합 소재 메이커'

세아창원특수강의 비전은 2030년까지 'Steel & Metal 종합 소재 메이커'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 비전은 세 가지 핵심 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첫 번째 핵심 프로젝트는 미국 SST(SeAH Superalloy Technologies) 공장이다. 미국 텍사스주에 약 2,13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6,000톤 규모의 특수합금(니켈기 초내열합금, 티타늄 합금, 고합금 STS)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준공 후 본격 상업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SST 공장의 전략적 의미는 세 가지다. 첫째, 세계 최대 항공우주·방산 시장인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통해 미국 Buy American 조항과 관세 장벽을 우회할 수 있다. 둘째, 록히드마틴, 스페이스X, 보잉, GE에어로스페이스 등 미국 핵심 고객사와의 물리적 근접성을 확보한다. 셋째, 미국 현지 인력 고용과 기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R&D 역량을 강화한다. SST 공장의 타겟 제품은 톤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초프리미엄 합금으로, 범용 STS 대비 10~50배 이상의 단가를 기대할 수 있어 수익성 전환의 게임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핵심 프로젝트는 사우디 SGSI(SeAH Gulf Special Industries) 합작법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산업 투자 자회사 DUSSUR와의 합작으로, 킹 살만 에너지파크(SPARK)에 STS 무계목(Seamless) 강관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무계목 강관은 이음매가 없어 고온·고압 환경에서 내구성이 뛰어나며, 석유·가스 시추, 정유 플랜트, 발전설비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중동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인프라 시장이지만, 현지 STS 강관 생산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SGSI는 이 수입 대체 수요를 직접 공략하는 전략이며, 아람코라는 세계 최대 석유기업과의 파트너십은 판로 확보 면에서 강력한 경쟁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우위다. 세아창원특수강은 2019년에 아람코 전 구경 벤더 인증을 획득한 바 있어, 기술적 신뢰가 이미 검증된 상태다.

세 번째 핵심 프로젝트는 R&D 집중 투자와 설비 고도화다. 2024년 R&D 비용은 326억 원으로 2년 전 대비 77% 증가했으며, 2027년 말까지 단조 프레스를 현재 2,200톤에서 5,000톤급으로 대형화하고, 티타늄 생산설비를 증설(2027년 상반기)하는 등 설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설비 투자는 항공우주용 대형 단조품(터빈 디스크, 링)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SST 공장과 연계하여 '소재(세아창원특수강) → 단조(세아항공방산소재) → 가공(고객사)' 수직 계열 체제를 완성하려는 그룹 전략의 일환이다.

### 3-6. 차별화 포인트 종합 정리

세아창원특수강의 차별화 요소를 종합하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유일 STS 봉강·선재 일관 생산 체제(제강→압연→열처리→산세)라는 독점적 지위다. 이 독점적 지위는 국내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부여하며, 고객사 입장에서 공급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 우위다. 둘째, 1,650°C 초내열합금 기술의 국내 최초 확보다. 이 기술은 항공엔진용 와스팔로이, 인코넬 등의 국산화를 가능케 한 핵심 역량이다. 셋째, 아람코 전 구경 벤더, AS9100, Nadcap 등 글로벌 수준의 품질 인증 보유다. 넷째, 미국 SST·사우디 SGSI 등 해외 생산거점 네트워크 구축이다. 다섯째, 창원산업단지 내 위치에 따른 주요 고객사(두산에너지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와의 물리적 근접성이다.

### 3-7. 리스크 요인 상세

세아창원특수강이 직면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경쟁 리스크의 가장 큰 요소는 중국발 공급과잉이다. 한국신용평가는 "STS 시장에서 중국발 공급과잉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동남아(인도네시아·베트남) 경유 우회수출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한 범용 STS 시장의 구조적 저수익성은 중국 공세가 약화되더라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다.

원가·원재료 리스크는 니켈·크롬·코발트·몰리브덴 등 합금 원료의 국제 시세 변동성에 기인한다. 특히 니켈은 LME 가격이 2022년 톤당 10만 달러 가까이 급등한 뒤 2024년에는 1.5만 달러대까지 급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러한 원재료 가격 변동은 판가 전가에 시차(lag)가 발생하여 분기별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사업 리스크는 항공우주 사업의 인증 절차 장기화와 초기 매출 규모의 제한성이다. iM증권은 "본업(범용 STS)에서는 당분간 모멘텀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항공우주 사업이 의미 있는 매출 기여를 하기까지는 2028~2030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ST 공장의 초기 가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율(yield) 문제, 고객사 인증 지연 등도 리스크 요인이다.

규제·환경 리스크로는 CBAM 시행,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기오염·수질오염 관련 환경규제 강화 등이 있다. 전기로 기반이라 고로 대비 유리하지만,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Scope 2), 합금철 제조 과정의 상류 배출(Scope 3) 등도 점차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재무·유동성 리스크로는 SST-SGSI 등 대규모 해외 투자에 따른 자금 부담이 있으나, 세아베스틸지주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 3-8.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기업 심층 분석에서 도출되는 지원 전략의 핵심은 "전환기의 기업"이라는 키워드다. 세아창원특수강은 2024년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바닥을 통과한 뒤 2025년 극적인 반등을 이뤘고, 항공우주·방산이라는 구조적 성장 엔진을 장착하며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이 전환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강력한 차별화다. 총무 직무 관점에서는 미국·사우디 해외 사업장 확장에 따른 글로벌 행정 지원 업무 증가, 신규 설비 투자에 따른 시설관리 업무 확대, 환경·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대관 업무 증가 등이 예상되며, 이를 자소서에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총무가 할 수 있는 기여"로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제4장. 인재상, 조직문화 및 총무 직무 선호 인재 특성

#### 4-1. 세아그룹 공식 인재상과 핵심가치

세아그룹은 세 가지 유형의 인재를 추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첫째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다. 이 인재상은 겸허한 자세와 감사하는 마음, 정도경영에 대한 신념을 강조한다. 세아그룹은 2005년 윤리경영을 선포한 이래 '정직(Integrity)'을 핵심가치의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으며, 내부 윤리강령, 부패방지 시스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을 운영하고 있다. 면접에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류의 윤리적 딜레마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둘째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혁신과 도전정신을 의미한다. 핵심가치 '열정(Passion)'과 연결되며, 현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과 혁신을 추구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세아창원특수강이 범용 STS에서 항공우주 초내열합금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 인재상의 조직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면접에서는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경험"이나 "새로운 시도를 한 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이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적응력과 융화력을 갖춘 사람'으로, 조직 내 협업과 조화를 강조한다. 핵심가치 '실력(Competence)'은 개인의 전문성뿐 아니라 팀워크를 통해 성과를 내는 역량을 포괄한다. 철강 제조업은 제강→압연→열처리→검사→출하의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지므로, 한 부서의 문제가 전체 공정에 파급된다. 따라서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이 필수적이며, "나 홀로 성과"보다 "팀으로서의 기여"가 더 높이 평가되는 문화다.

이 세 가지 인재상을 경영이념 '세상을 아름답게(Beautiful World)'가 관통한다. 이 경영이념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가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자소서에서 이 경영이념을 언급할 때는 단순 인용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과 연결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 4-2. 실제 채용·평가에서의 인재상 해석

공식 인재상과 실제 채용 과정에서의 평가 기준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합격 후기와 직원 리뷰를 종합하면, 실제 채용에서는 조직 적합성(Cultural Fit)이 기술적 역량보다 더 중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 합격 후기에는 "철강회사인 덕에 요구하는 인재상이 군인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이는 규율·조직력·충성도를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한다. 또 다른 후기에서는 "조직 내 기존 인력과도 합이 중시되며, 손발을 맞춰 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2차 면접(임원면접) 단계에서는 전문 역량 평가보다는 인성과 장기 근속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많이 출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 계획, 창원 거주 가능성, 가족 상황, 장기 경력 계획 등을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가 있다. 이는 철강 제조업의 특성상 숙련 인력의 이직이 큰 손실이 되기 때문이며, 신입사원 교육에 1~2년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최소 5~10년 이상의 근속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창원이라는 비수도권 지역 근무에 대한 의지도 중요한 평가 포인트다.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이러한 맥락에서 자소서 전략의 핵심은, 기술적 역량(자격증, 학점 등)을 나열하기보다는 "조직에 녹아들어 함께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팀 프로젝트 경험, 조직 활동(학생회, 동아리 임원, 군 복무 등)에서의 협업 경험,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을 완수한 경험 등을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4-3. 조직문화 분석 — 직원 리뷰 플랫폼 종합 분석

세아창원특수강의 조직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178건, 평균 3.5점/5점), 잡플래닛(166건, 평균 3.3점/5점), 캐치(31건, 평균 4.0점/5점) 등 주요 직원 리뷰 플랫폼을 종합 분석했다. 플랫폼별로 평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응답자 모집단의 차이(블라인드는 재직자 중심, 잡플래닛은 퇴사자 비중 높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급여와 복리후생이다. 신입사원 초봉은 약 5,383만 원 수준으로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며, 평균연봉은 약 7,754만 원(잡코리아 기준)에서 8,891만 원(인크루트 기준) 사이로 추정된다. 복리후생으로는 복지포인트, 숙소 3년 제공(신입사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사내식당, 통근버스 등이 제공된다. 캐치 기준 직원의 89%가 "휴가 사용이 자유롭다"고 응답했으며, 금요일 빠른 퇴근제(오후 4시30분 퇴근)도 운영되고 있다. 고용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재계 42위 대기업의 안정적 고용 환경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단점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은 보수적 조직문화다. "남초문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평가가 다수이며, "공대-군대-공대로 이어지는 문화"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상명하복이 기본"이라는 리뷰가 다수 존재하며, 블라인드 항목별 평점에서 '사내 문화'와 '경영진' 항목이 각각 3.1점으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낮다. 시니어 과포화 현상, 세대 간 갈등, 부서별 편차(이른바 '부바부')가 자주 언급된다. 잦은 회식 문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체계 등도 젊은 직원들의 불만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 변화의 조짐도 감지된다. 정시퇴근 문화의 확산, 복장 자유화(캐주얼 복장 허용), 수평적 호칭 도입 시도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너가 참사람"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하며, 이는 이순형 회장의 경영 철학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를 반영한다. 또한 포스코특수강 시절의 문화가 일부 잔존하는 점이 특징적인데, 2015년 세아 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 사이에서 "포스코 시절이 더 나았다"는 회고도 간혹 나오며, 세아 그룹 문화와 기존 포스코 문화 사이의 융합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 4-4. 총무 직무 도메인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인재 특성 — 역량 분석

총무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역량을 전문 직무 가이드와 HR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최우선 역량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총무는 "기업의 테두리 안에 있는 수많은 관리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로, 경영진부터 생산현장 작업자, 외부 거래처, 관공서 담당자까지 극히 다양한 계층·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매일 소통해야 한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전달 능력이 아니라, 경청→이해→해석→전달→피드백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통합적 소통 역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영진의 추상적 지시를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현장의 구체적 문제를 경영진이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는 양방향 소통이 핵심이다.

두 번째 핵심 역량은 꼼꼼함과 정확성이다. 총무는 자산·비품 대장 관리, 계약서 검토, 문서 관리, 비용 정산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행정 업무를 대량으로 처리한다. 비품 관리 대장의 한 줄 오류, 계약서의 한 조항 누락, 공문서의 날짜 오기가 조직 운영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법인차량 보험 갱신 누락, 법정업무교육 미이행, 소방점검 일정 지연 등은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사안이므로, "절대 빠뜨리지 않는" 꼼꼼함이 필수적이다. 이 역량은 자소서에서 구체적 사례(데이터 관리, 일정 관리, 문서 정리 등에서의 꼼꼼함)로 증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 번째 핵심 역량은 비정형적 상황에 대한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이다. 총무는 "다른 부서의 업무가 아닌 모든 일"을 처리하는 포괄적 직무이므로, 매뉴얼에 정해지지 않은 다양한 상황에 수시로 대응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시설 고장, 갑작스러운 VIP 방문, 새로운 규제 시행에 따른 대응 등 예측 불가능한 업무가 일상이다. 따라서 총무에서의 '창조성'은 예술적 창의성이 아니라, "없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도 총무 직무의 핵심 역량으로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을 명시하고 있는 근거와 일치한다.

### 4-5. 고성과자와 평균 성과자의 차이

총무 직무에서 고성과자와 평균 성과자를 구분하는 핵심적 차이는 세 가지 차원에서 드러난다.

업무 범위 인식의 차이가 첫 번째다. 평균 성과자는 주어진 업무, 요청받은 업무만 수행한다. "시설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한다"는 반응적(Reactive) 접근이다. 반면 고성과자는 전사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한다. "이 시설이 5년 후 노후화될 것을 예측하고 미리 교체 계획을 수립한다"는 선제적(Proactive) 접근이다. 이 차이는 총무의 역할을 '행정 지원'으로 보느냐 '조직 인프라 전략 관리'로 보느냐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가 두 번째다. 평균 성과자는 정보를 단방향으로 전달한다. "경영진이 이렇게 결정했으니 따르라"는 메신저(Messenger) 역할에 머문다. 반면 고성과자는 경청과 해결책 제시를 동시에 수행한다. 현장의 불만을 단순히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한다. 이 차이는 조직 내에서의 신뢰도와 영향력의 차이로 직결된다.

비용 관리 관점의 차이가 세 번째다. 평균 성과자는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자(Executor) 역할에 머문다. 반면 고성과자는 원가 절감과 자산가치 극대화를 기획하는 전략가(Strategist)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소모품 구매에서 단순히 기존 거래처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업체 견적 비교, 대량 구매 할인 협상, 친환경 대체 제품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과 ESG 동시 달성 등을 기획한다.

### 4-6. 제조업 총무의 특수한 인재 요건

제조업, 특히 철강 제조업에서의 총무는 일반 사무직 총무와 다른 특수한 인재 요건을 가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현장에 대한 이해도다. 세아창원특수강의 67만m<sup>2</sup> 공장 부지에는 전기로, 압연기, 열처리로, 산세라인 등 대형 제조설비가 밀집해 있다. 총무가 이 설비들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 위험 요소, 유지보수 주기 등을 이해하고 있으면 시설관리 업무에서 현장 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외부 업체 관리에서도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전기료가 무엇인지", "STS 봉강이 어떤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지" 정도의 기본 지식은 면접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안전 의식도 극히 중요하다. 철강 제조 현장은 고온(전기로 내부 1,600°C 이상), 소음, 분진, 중량물, 화학물질(산세 공정의 산 용액), 크레인 작업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상존한다. 총무 부서는 안전교육 실시, 입출입 통제, 보호구 관리, 안전 점검 일정 관리 등에 관여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안전 우선 사고방식이 필수적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진의 안전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됐으므로, 총무의 안전 관련 업무의 중요성도 그에 비례하여 높아졌다.

체력과 현장 적응력도 고려 요소다. 일반 사무직과 달리 제조업 총무는 공장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외부 업체와 함께 수리·공사 현장을 확인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 대응해야 한다. 사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무실에만 앉아 있는 업무가 아닌 만큼, 기본적인 체력과 현장 환경(고온·소음·분진)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하다.

### 4-7. 세아창원특수강 총무 지원자에게 필요한 소프트 스킬 심층 분석

세아 그룹의 인재상, 조직문화, 총무 직무 특성을 종합하면, 세아창원특수강 총무 지원자에게 특히 중요한 소프트 스킬을 다섯 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겸손함과 감사하는 태도다. 세아 인재상 첫 번째 키워드와 직결되며, 위계적·보수적 조직문화에서 윗사람에 대한 존중과 겸손한 자세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선배·상사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제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태도를 의미한다. 면접에서 "상사의 지시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도, 정면으로 반박하겠다는 것도 아닌,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한 뒤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균형 잡힌 답변이 효과적이다.

둘째, 적응력과 인내심이다. 보수적 조직문화에 적응하면서도 건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블라인드 리뷰에서 "남초문화", "세대 간 갈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러한 환경에서 좌절하거나 이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내심이 중요하다. 동시에 조직의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시스템·프로세스에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세아창원특수강은 현재 전략적 전환기에 있으므로,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높이 평가될 것이다.

셋째, 정직함과 투명성이다. 핵심가치 첫 번째인 '정직'과 윤리경영 전통에 부합해야 하며, 총무는 자산·계약·비품·예산을 직접 관리하는 직무이므로 재무적 투명성이 특히 중시된다.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거래처와의 부적절한 관계,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은 총무 직무에서 가장 치명적인 윤리적 리스크이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정직한 태도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넷째, 주도적 열정과 서비스 마인드의 양립이다. 총무는 임직원을 '내부 고객'으로 대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면서도, 반복적인 일상 업무 속에서 개선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주도적 태도가 요구된다.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서 챙기는 사람", "한 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총무에서 인정받는 유형이다. 세아 인재상의 '열정'과도 연결되는 이 역량은, 자소서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한 경험"을 소재로 증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섯째, 명확하고 간결한 소통 능력이다. 중공업·제조업 특성상 모호한 표현보다는 명확하고 간결한 커뮤니케이션이 선호된다. 공장 현장에서의 소통은 시간이 제한적이고 소음이 높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고 정확히 확인하는 소통 습관이 중요하다. 보고서 작성에서도 장황한 서술보다는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스타일이 선호된다.

### 4-8. 면접 활용 포인트

인재상·조직문화 분석에서 도출되는 면접 전략의 핵심은, "이 회사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군 복무 경험(보수적·위계적 조직에서의 적응 경험), 팀 프로젝트에서의 조정·중재 경험, 꼼꼼한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에피소드, 장기 근속 의지와 창원 생활 계획 등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자소서 문항이 "지원직무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300~700자)로 단일 문항이므로, 총무 직무의 핵심 역량(커뮤니케이션·꼼꼼함·문제해결)과 세아 인재상(정직·열정·실력) 중 각각 하나씩을 선택하여 구체적 경험 하나로 연결하는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다.

### 제5장. 총무 직무 심층 분석

#### 5-1. 총무의 본질적 정의와 NCS 기반 직무 체계

총무(General Affairs)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 및 복지지원, 대·내외적인 회사의 품격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서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다. '자산의 효율적 관리'는 총무가 기업의 물리적 자산(건물·설비·차량·비품)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고 그 가치를 보전·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은 총무가 전 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적·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회사의 품격 유지'는 총무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의전, 공식 행사, 대관 관계 등 조직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총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직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직무다. 어떤 부서의 명시적 업무도 아닌 일,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 모두 총무의 영역이 된다. 이러한 포괄성 때문에 총무는 다른 어떤 직무보다 업무 범위가 넓고 다양하며, "한 가지를 깊이 파는" 전문가형보다는 "여러 가지를 넓게 아는" 제너럴리스트형 인재에게 적합하다. 세아창원특수강에서 총무는 경영관리 부문의 하위 직무로 분류되며, 기획·인사와 별도로 독립 모집된다. 이번 2026년 상반기 채용에서도 총무는 별도 직무로 공고됐으며, 이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총무를 인사·기획과 구분된 독립적 전문 직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5-2. 총무의 핵심 업무 영역 — 자산관리

자산관리는 총무 업무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영역이다. 기업이 보유한 유형 고정자산(건물·토지·기계장치·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의 취득·유지·보수·처분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다. 세아창원특수강의 경우 67만m<sup>2</sup> 부지, 제강공장·압연공장·열처리공장 등 대규모 건축물, 수십 대의 법인차량, 수천 점의 사무용 비품·집기, 보안 장비(CCTV·출입통제시스템), IT 기기(PC·프린터·서버) 등이 관리 대상이다.

자산관리의 실무적 핵심은 '자산 대장(Fixed Asset Register)'의 정확한 유지다. 모든 자산은 취득일, 취득가액, 감가상각 방법·기간, 현재 장부가액, 설치 위치, 관리 부서, 사용 상태 등이 기록되어야 하며, 연 1회 이상 실물 재고 조사(재물조사, Physical Count)를 통해 대장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 재물조사는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유휴 자산 식별, 노후 자산 교체 계획 수립, 불용 자산 처분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중요한 업무다. ERP 시스템(세아는 SAP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의 자산관리 모듈과 실물 관리를 연동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최근에는 RFID 태그나 바코드를 활용한 자동화 추세도 확산되고 있다.

비품(소모품) 관리도 총무의 일상적 업무다. 사무용품(문구류·복사용지·토너 등), 청소용품, 음료·다과, 안전보호구 등의 재고를 파악하고 적시에 발주하여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 업무는 단순해 보이지만,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다 구매를 방지하고, 복수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하여 구매 단가를 절감하는 등의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 5-3. 총무의 핵심 업무 영역 — 시설관리

시설관리는 제조업 총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업무 영역이다. 세아창원특수강 같은 대규모 제조시설에서는 건물 유지보수(지붕·외벽·바닥·방수), 전기 설비(수배전반·변압기·조명·비상발전기), 기계 설비(공조설비·보일러·냉각탑·급배수 설비), 소방 설비(스프링클러·소화기·화재감지기), 승강 설비(엘리베이터·크레인), 환경 설비(폐수처리·집진설비·소음방지) 등 관리 대상이 매우 방대하다.

시설관리의 실무는 '예방 정비(Preventive Maintenance)'와 '사후 정비(Corrective Maintenance)'로 나뉜다.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예방 정비는 설비의 노후화·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교체·보수하는 활동이며, 총무는 이 예방 정비의 일정을 계획하고 외부 전문 업체와 계약·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사후 정비는 고장이 발생한 뒤 신속하게 복구하는 활동으로, 24시간 가동하는 제강공장에서 예기치 못한 설비 고장(정전, 배관 파열, 공조기 고장 등)이 발생하면 생산 차질로 이어지므로 긴급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 총무는 시설관리 업체와의 긴급 출동 계약, 비상 연락 체계, 응급 복구 절차 등을 사전에 마련해두어야 한다.

법정 점검도 시설관리의 핵심이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 전기 점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 점검(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정기검사,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안전점검 등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총무는 이 법정 점검의 일정 관리, 업체 선정, 점검 결과 보관, 지적사항 개선 조치 등을 총괄한다. 법정 점검을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절대 빠뜨리지 않는" 꼼꼼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 5-4. 총무의 핵심 업무 영역 — 업무지원·복지·행사

임직원 업무지원은 총무의 서비스 기능에 해당한다. 전사적 행정업무(공문 수발신, 문서 관리, 우편·택배 관리), 회의실 예약·관리, 사무환경 관리(조명·공조·청소), 명함·인장 관리, 전화 교환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구내식당 운영 관리(위탁 급식업체 선정·평가, 메뉴 관리, 위생 점검), 기숙사·사택 관리(입퇴거 관리, 시설 유지보수, 비용 정산), 통근버스 운영(노선 설계, 운행 일정, 운수업체 관리), 사내 편의시설(체육관·도서실·편의점 등) 운영 관리 등 복리후생 인프라의 실질적 운영도 총무가 담당한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약 1,200명의 직원이 근무하므로, 이 복지 인프라의 운영 규모도 상당하다.

행사 기획·운영도 총무의 주요 업무다. 시무식(1월), 창립기념일 행사, 워크샵·연수, 명절 선물 지급, 종무식(12월) 등 연간 고정 행사를 기획·운영하며, VIP 방문 의전, 기자간담회, 투자설명회 등 비정기 행사에도 대응한다. 특히 세아창원특수강의 경우 아람코, 보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글로벌 거래처의 임원 방문이 빈번하므로, 의전 프로토콜(공장 투어 동선, 안전장비 준비, 통역 배치, 식음료·숙소 예약, 선물 준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5-5. 총무의 핵심 업무 영역 — 안전·보안·환경·대관

안전교육·보안 관리는 제조업 총무에서 특히 중요한 영역이다. 총무는 5대 법정 의무교육(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퇴직연금교육) 실시를 관장하며,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에도 관여한다. 보안 관리에서는 출입통제 시스템(ID카드·생체인식) 운영, CCTV 관리, 기밀문서 관리, 보안 교육 등을 담당한다. 철강 공장은 기술 보안(합금 조성·열처리 조건 등 핵심 기술정보)이 중요하므로, 외부인 출입 통제와 정보 보안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환경규제 대응도 총무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전기로 분진·가스), 수질오염물질 관리(산세 공정 폐수), 소음·진동 관리, 폐기물 관리 등에서 환경부·경남도·창원시 등 관할 관청의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환경 관련 인허가 갱신, 환경영향평가 대응, 환경 점검(정기·불시) 대응 등의 업무가 발생한다. 물론 세아창원특수강에는 별도의 안전환경팀이 존재하겠지만, 총무는 대관(관공서 대응) 창구로서 환경 점검 시 방문 안내, 서류 준비, 지적사항 후속 조치 관리 등에 관여한다.

대관·대민 업무는 총무의 외부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지자체(건축물 관련 인허가, 사업장 등록), 소방서(소방점검), 관할 경찰서(보안 관련), 세무서(고정자산 관련 세무), 고용노동부(산업안전 관련 점검), 환경부/환경청(환경점검) 등과의 관계를 관리한다. 공문서 수발신, 인허가 서류 준비·제출, 점검 대응, 지적사항 개선보고 등이 실무적 내용이며, 관공서 담당자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업무 효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 5-6. 업무 사이클별 상세 업무 — 일일·주간·월간·분기·연간

일일 업무의 핵심은 사무환경 점검과 돌발 상황 대응이다. 출근 시 사무실·공장 주요 시설(조명·공조·청소 상태) 점검, 시설물 고장 접수 및 수리 대응, 차량 배차·관리(유류비 정산·사고접수·과태료 처리), 비품·소모품 관리 및 발주, 내방객 접객·의전, 공문 수발신, 우편·택배 수령·배부, 일일 업무보고서 작성 등이 매일 반복되는 루틴 업무다. 이 중 시설물 고장 접수·대응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발생하므로, 항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주간 업무로는 주간 시설 순회 점검(공장 내부·외부 시설 상태 육안 점검), 주간 업무보고 작성, 차주 행사·일정 사전 준비, 소모품 재고 확인 및 발주 등이 있다.

월간 업무로는 법인차량 정비·보험·세금 관리, 사무용품 재고 점검·보충, 부동산 임대차 관리(임대료 지급, 계약 갱신 관리), 건물 정기점검(전기·소방·승강기·공조) 일정 관리 및 결과 확인, 경비·지출 관리 보고(예산 대비 실적), 월간 행사계획표 관리 등이 있다.

분기 업무로는 분기 예산 집행 현황 보고, 시설 투자 계획 검토·업데이트, 외부 용역업체 서비스 품질 평가, 보안 시스템 점검, 분기 법정교육 이행 확인 등이 있다.

연간 업무는 1월 시무식 기획·운영으로 시작하여, 설 명절 선물 지급(1~2월), 정기 주주총회 관련 행정 지원(3월), 봄 대청소·시설 점검(4월), 에너지절약 캠페인(여름), 추석 선물 지급(9월), 연말 종무식 기획·운영(12월), 차기년도 예산 수립(11~12월), 자산·비품 실사(연 1회), 보험 갱신(연 1회), 워크샵·연수 기획·운영(연 1~2회), 5대 법정 의무교육 실시(연 1회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 이 연간 캘린더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총무 업무의 효율성을 결정한다.

### 5-7. 세아창원특수강 총무의 특수성 — 대형 제조공장 총무

앞서 4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세아창원특수강 같은 대규모 철강 제조시설의 총무는 일반 사무직 총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 특수성을 가진다. 이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관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67만m<sup>2</sup> 부지에 걸친 제강공장·압연공장·열처리공장·산세공장·검사동·사무동·기숙사·구내식당·주차장 등 수십 동의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전기로, 압연기, 열처리로 등 핵심 생산설비는 생산 부서가 직접 관리하지만, 이 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구조물·지붕·바닥·배관, 유틸리티(전기·용수·가스·압축공기) 공급 설비, 공장 내부 조명·환기·냉난방 등은 총무의 관리 범위다. 이 규모의 시설관리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 빌딩 총무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한다.

둘째, 안전관리의 중요도가 극히 높다. 전기로 내부 온도는 1,600°C를 넘고, 용강(녹은 쇳물) 이송 중 비산(飛散) 위험, 대형 크레인 작업 시 중량물 낙하 위험, 산세 공정의 강산(불산·질산·황산) 취급 위험, 소음(80~100dB 이상), 분진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상존한다. 총무 부서는 방문객의 안전장비(안전모·안전화·보안경·귀마개) 관리 및 배부, 보행 통로·안전 표지판 관리, 안전교육 일정 관리 등에 직접 관여하며,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에도 참여한다.

셋째, 환경규제 대응이 일상적이다. 전기로 조업 시 발생하는 분진·소음, 산세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산, 열처리 공정에서의 가스 배출 등에 대해 환경부·경남도 등 관할 관청의 규제가 적용된다. 환경 관련 인허가(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등)의 갱신·변경 신고, 환경 점검(정기·불시) 대응, TMS(원격감시 시스템) 관리 등이 총무의 대관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넷째, 대규모 복지 인프라 운영을 담당한다. 약 1,200명 직원의 구내식당(1일 3식, 교대근무 고려), 기숙사(수백 실 규모), 통근버스(다수 노선), 사택, 체육·문화시설 등의 운영·관리가 총무의 업무다. 식당의 경우 위탁 급식업체 선정(입찰·평가), 메뉴 관리, 위생 점검, 직원 만족도 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기숙사는 입퇴거 관리, 시설 유지보수, 생활 규칙 관리, 안전 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 복지 인프라의 운영 품질은 직원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총무의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해지는 영역이다.

### 5-8. 내부·외부 이해관계자 맵 상세

총무는 전 부서와 교류하는 유일한 직무 중 하나이며, 이해관계자 맵이 매우 넓다. 내부 이해관계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진(사장·부사장·임원)과는 의전·경영활동 지원(출장 준비, 차량 배차, 회의실 준비, VIP 의전) 차원에서 밀접하게 소통한다. 경영진의 요구는 신속성과 완벽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압적 성격인 경우가 많으므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인사팀과는 복리후생 제도 운영(기숙사·사택·통근버스·구내식당), 법정교육 실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준비 등에서 긴밀히 협업한다. 재무/회계팀과는 총무 관할 예산의 집행·정산, 고정자산 감가상각 관리, 각종 비용 처리(시설수리비·소모품비·차량유지비·보험료 등)에서 상호작용한다. 구매팀과는 비품·소모품 구매, 시설 공사·수리 용역 발주에서 협력하며, 입찰·계약·검수 절차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생산/현장 부서와는 시설 유지보수 요청 접수·처리, 안전관리 협조, 현장 환경 개선 등에서 소통하며, 총무는 현장의 '고객'으로서 생산 부서의 업무 효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IT팀과는 전산기기(PC·프린터·서버) 관리, 보안 시스템(CCTV·출입통제) 운영, 사내 네트워크·전화 관리 등에서 협업한다. 법무팀과는 각종 계약서(임대차·용역·구매·보험) 검토, 법인 등기 관리, 법적 분쟁 대응 등에서 연계한다. 안전환경팀과는 환경 점검 대응, 안전교육 일정 관리, 보호구 관리 등에서 공동 업무를 수행한다.

외부 이해관계자로는 지자체(창원시, 경남도)의 건축·시설 관련 인허가 부서, 소방서(소방점검·소방교육), 환경부/환경청(환경규제·점검), 고용노동부(산업안전 점검·산재 관련), 세무서(고정자산·차량 관련 세무), 경찰서(보안 관련)가 대관 파트너다. 시설관리 전문 업체(기전설비·엘리베이터·공조·소방 등), 보안경비업체, 차량 관리업체(리스·정비·보험), 급식위탁업체, 청소·조경업체, 사무용품 공급업체, 보험회사 등이 일상적 외부 거래처다. 이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관리가 총무 업무의 효율성과 품질을 결정하며, 특히 장기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 5-9. 필수 역량 체계 — 기술적 역량, 디지털 역량, 소프트 스킬

총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적 역량으로는 시설관리 기초 지식(건물 구조, 전기 배선, 배관, 공조, 소방 설비의 기본 원리와 유지보수 방법), 법률/규제 지식(상법, 민법 중 계약법, 세법 중 고정자산 세무, 부동산등기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법, 건축물관리법, 환경법 등 총무 관련 주요 법규의 기본 내용 이해), 자산관리 지식(고정자산의 취득·감가상각·처분 회계 처리, 재물조사 방법, 자산 대장 관리), 계약관리 능력(각종 계약서의 주요 조항 검토, 계약 조건 협상, 계약 이행 관리, 분쟁 시 초기 대응), 차량관리 능력(법인차량 운영 규정, 보험·세금·정비 관리, 배차 시스템 운영), 행사관리 능력(기업 행사 기획·진행, VIP 의전 프로토콜, 행사 예산 관리), 보안관리 능력(출입통제 시스템 운영, CCTV 관리, 기밀문서 관리 규정, 보안 교육)이 포함된다.

디지털 역량으로는 MS Office 활용(특히 Excel의 함수·피벗테이블·데이터 관리 기능), 그룹웨어/ERP 시스템(SAP 등) 활용,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FAMS(Fixed Asset Management System, 고정자산관리시스템) 활용,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BMS(Building Management System, 스마트빌딩관리시스템) 기초 이해, 프레젠테이션 도구(PowerPoint) 활용이 필요하다. 신입사원 수준에서 ERP나 FAMS에 능통할 것이 기대되지는 않지만,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총무 업무에서 활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면접에서 긍정적 인상을 줄 수 있다.

소프트 스킬로는 앞서 4장에서 상세히 분석한 커뮤니케이션(NCS 기준 총무 직무 평가 항목 1위), 창조적 문제 해결(평가 항목 2위), 위기관리(돌발 상황에서의 침착한 판단·신속한 대응), 꼼꼼함·정확성(행정·관리 업무의 기본), 멀티태스킹(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의 우선순위 판단과 병행 처리), 서비스 마인드(임직원을 내부 고객으로 대하는 태도)가 핵심이다.

### 5-10. 성과지표(KPI)와 평가 포인트

총무의 KPI는 정량적 측정이 다른 직무(영업의 매출, 생산의 생산량 등)에 비해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네 가지 핵심 영역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첫째, 비용·자원 관리 영역이다. 총무 관할 예산의 집행률(계획 대비 실적), 운영비용 절감률(전년 대비 또는 벤치마크 대비), 소모품 구매 단가 절감률,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 등이 정량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불황기에는 비용 절감이 총무의 가장 중요한 KPI가 된다.

둘째, 시설·안전 관리 영역이다. 총무 관할 시설에서의 사고 발생 건수(목표: 0건), 시설 쾌적성 만족도(직원 설문 기반), 법정 정기점검 이행률(100% 달성 여부), 시설 고장 접수 후 복구까지 평균 소요시간(Response Time), 에너지 효율 개선도 등이 지표다.

셋째, 거버넌스(관리 체계) 영역이다. 계약 갱신·만료 관리율(적기 갱신 여부), 문서·자산 실사 정확도(대장 대비 실물 일치율), 내부감사 지적 건수(목표: 0건), 법적 분쟁 또는 과태료 발생 건수(목표: 0건), 법정 의무교육 이행률(100%) 등이 지표다.

넷째, 직원 경험(Employee Experience) 영역이다. 복리후생 만족도(구내식당·기숙사·통근버스 등), 사무환경 만족도, 업무지원 요청 응답시간(Service Level), 행사·의전 만족도 등이 지표다. 이 영역의 KPI는 정성적 평가(설문, 피드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총무의 '고객 지향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신입사원 단계에서는 이러한 KPI를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선배·상사의 지시 아래에서 개별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1차적 평가 포인트다. "맡겨진 일을 실수 없이 처리한다", "한 번 가르치면 다시 묻지 않는다", "시키기 전에 미리 챙긴다" 등의 기본적 업무 태도가 신입사원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 5-11. 대표 업무 시나리오 상세

총무의 실제 업무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 네 가지 대표적 업무 시나리오를 상세히 설명한다.

시나리오 1은 긴급 위기 대응 상황이다. 야간 교대근무 중 공장 일부 구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접수된다. 총무 당직자는 즉각 비상발전기 자동 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관리 업체 비상 연락처로 긴급 출동을 요청한다. 동시에 생산 부서 당직자에게 정전 영향 범위를 확인하고, 안전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구역 직원의 안전 대피를 지원한다. 정전 원인이 수배전반 차단기 트립으로 확인되면, 전기안전관리 업체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복구 조치를 취한다. 이후 관할 관청(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고 보고를 하고, 사고 경위·원인·조치 내용·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진에 보고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신속한 의사결정, 다부서 동시 조정, 외부 업체와의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침착한 위기 대응, 정확한 보고서 작성 능력이다.

시나리오 2는 대규모 시설 유지보수 프로젝트다. 공장 공조시스템(냉난방·환기)이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교체가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필요하다는 시설 진단 보고가 올라온다. 총무는 전문 업체 3곳 이상으로부터 현장 조사·견적을 받고, 각 업체의 기술력·가격·공사기간·A/S 조건을 비교 분석하여 업체 선정 품의서를 작성한다. 예산 확보를 위해 재무팀과 협의하고, 공사 일정을 생산 부서와 조율하여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시기(정기 보수 기간 등)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계획한다. 시공 기간 중에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공사 중 화재 예방, 감전 방지, 분진 관리 등)를 감독하며, 준공 후에는 검수를 실시하고 시운전을 확인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시설 기술에 대한 기초 이해, 원가 분석·비교 능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 부서 간 조율 능력, 안전 의식이다.

시나리오 3은 VIP 의전·행사 운영이다. 사우디 아람코 SGSI 합작법인 관련하여 아람코 임원진 3명이 세아창원 특수강 본사 공장을 방문한다는 공문이 접수된다. 총무는 방문 목적·일정·인원·식이제한(할랄 식단 등)·숙소 선호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당일의 분 단위 일정표를 작성한다. 공장 투어 동선을 설계하되, 보안 구역·위험 구역을 사전에 식별하고 안전장비(안전모·보안경·안전화·방열복)를 인원수에 맞게 준비한다. 통역 배치(아랍어 또는 영어), 회의실 준비(프리젠테이션 장비·다과), 점심·만찬 예약(할랄 식단 가능한 레스토랑), 숙소 예약(VIP급 호텔), 공항 픽업 차량(대형 세단 또는 밴), 기념품 준비 등을 빠짐없이 챙긴다. 당일에는 전 일정을 수행하며, 돌발 상황(일정 변경, 교통 체증, 장비 고장 등)에 즉시 대응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의전 프로토콜 숙지, 섬세한 기획력, 외국어 소통 능력(영어), 문화적 감수성, 위기 대응력이다.

시나리오 4는 환경부 불시 점검 대응이다. 경남도 환경영향평가 담당 부서에서 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불시 점검을 통보한다. 총무는 사전 통보 접수 즉시 안전환경팀에 연락하여 점검 대상·범위·일정을 공유하고, 관련 서류(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최근 자가측정 결과, TMS 데이터, 방지사설 유지관리 기록 등)를 일괄 준비한다. 안전환경팀과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점검관의 공장 내 이동 동선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장비를 준비한다. 점검 당일에는 점검관을 맞이하여 안내하며, 점검 과정에서의 질의에 안전환경팀 담당자가 응대하도록 조율한다. 점검 종료 후 지적사항이 있으면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기한 내에 보완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환경 법규에 대한 기초 이해, 서류 관리·준비 능력, 대외 커뮤니케이션, 부서 간 조율, 후속 조치 관리 능력이다.

### 5-12. 총무 직무 커리어 패스

총무 직무의 커리어 경로는 단계별로 명확한 성장 트랙을 형성한다.

신입(1~3년차)은 총무 업무의 기초를 익히는 시기다. 비품·소모품 관리 및 발주, 문서 정리·보관, 우편·택배 관리, 차량 배차·관리 보조, 시설관리 요청 접수·전달, 회의실 준비, 행사 준비·운영 보조, 선배의 지시에 따른 실무 수행이 주된 업무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총무 업무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산관리, 시설관리, 행정, 의전, 보안, 대관 등 총무의 다양한 업무 영역을 고루 경험하면서, 자신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발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ERP·그룹웨어·자산관리시스템 등 IT 도구에 빠르게 적응하고, 조직 내 주요 인물(경영진·부서장·현장 관리자)의 업무 스타일과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 향후 업무 효율에 큰 도움이 된다.

대리급(4~7년차)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다. 주요 자산(건물·차량·대형 장비) 관리 주담당, 계약서 작성·검토(정형적 계약), 소규모 행사 기획·운영 주도, 특정 시설관리 영역(전기, 소방, 공조 중 하나) 전문화, 후배 신입사원 지도·육성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 단계에서는 "맡겨진 영역에서의 전문성"이 평가의 핵심이 되며, 외부 업체와의 협상·관리 능력, 비용 절감 실적 등이 승진 심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과장급(8~12년차)은 관리자로의 전환 단계다. 총무 예산 관리(수립·집행·통제), 중규모 프로젝트(시설 리모델링, 대형 설비 교체 등) 주관, 외부 용역업체 선정·계약 협상·서비스 평가, 부서 간 조율(경영진·현장·외부 간 조정자 역할), 법정 점검·인허가 총괄 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며, 단순히 현재 업무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를 잘 처리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 시설 투자 계획, 자산 최적화 전략, 비용 구조 개선 방안 등을 기획·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팀장급 이상에서는 총무 부서 전체를 운영하고, 전사적 관점에서 자산 전략·시설 투자 계획·복리후생 제도 설계 등을 주도한다. 경영진에 대한 직접 보고와 의사결정 지원이 주된 역할이며, 총무 부서의 인력 관리·평가·육성도 책임진다.

총무 직무에서의 횡적 이동(Cross-functional Move)도 가능하다. 인사팀(복리후생·교육 영역에서의 연계), 구매팀(조달·계약 관리 역량 활용), 기획팀(예산·전략 수립 역량 확장), 안전환경팀(시설·안전 관리 전문성 심화), IR/대외협력(대관·대민 경험 활용) 등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제조업 총무 경험은 부동산·시설관리 전문 기업, 대형 빌딩·호텔·리조트의 시설관리 부서, 정부·공공기관의 관재·시설 부서 등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 5-13.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직무 분석에서 도출되는 지원 전략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자소서에서 총무 직무를 "단순 행정 지원"이 아닌 "조직 인프라의 전략적 관리"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비품 관리를 잘 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67만m<sup>2</sup> 대형 제조시설의 물리적 인프라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산 부서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제조업 총무의 특수성(시설관리 비중, 안전 중요도, 환경규제 대응)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 전기로, STS 봉강, 압연, 산세 등 세아창원특수강의 핵심 공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보여주면 강력한 차별점이 된다. 셋째, 커뮤니케이션·꼼꼼함·문제해결이라는 총무 3대 핵심 역량을 구체적 경험 사례로 증명해야 한다. 700자라는 제한된 분량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하나의 역량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하나의 경험 사례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면접에서 추가로 어필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GII Korea — 특수강 시장 글로벌 예측 보고서(2025-2030) — <https://www.giikorea.co.kr/report/ires1602121-special-steel-market-by-product-bearing-steel-free.html>
2. EBN — 첨단산업 발전에 특수강 호황, 2033년 시장 규모 464조원 전망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0135>
3. Market Data Forecast — Global Stainless Steel Market Size 2033 — <https://www.marketdataforecast.com/market-reports/stainless-steel-market>
4. Mordor Intelligence — Stainless Steel Market Trends & Outlook 2025-2031 —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industry-reports/stainless-steel-market>
5. Market Reports World — Special Steel Market Global Analysis 2033 — <https://www.marketreportsworld.com/market-reports/special-steel-market-14718323>
6. SkyQuest — Stainless Steel Market Size & Growth Trends 2033 — <https://www.skyquestt.com/report/stainless-steel-market>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7. 산업단지신문 — 한국철강협회, 2025 세계 철강 산업지도 발간 — <https://www.sand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9>
8. EG-TIPS(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 — 철강 산업 분석 — [https://tips.energy.or.kr/overconsector/overconsector\\_view\\_02.do?code\\_num=MI&ch\\_code\\_num=MI02](https://tips.energy.or.kr/overconsector/overconsector_view_02.do?code_num=MI&ch_code_num=MI02)
9. ESG경제 — 한국 수소환원제철 생산비용 세계 최고 —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817>
10. ESG경제 — 철강업계 높은 고로 의존도 당분간 지속 —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10>
11. 뉴스핌 — 포스코·현대제철 무탄소 전환 전망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19000733>
12. Steel on the Net — Steel Industry Value Chain Analysis — <https://www.steelonthenet.com/value-chain.html>
13. Koala Gains — Iron & Steel Industry Value Chain — <https://koalagains.com/industry-tariff-report/ironandsteel/industry-areas>
14. 머니S — 우주항공 넘보는 세아창원특수강, 고부가 특수합금서 승부 —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102109381046796>
15. 아시아투데이 — 세아창원특수강 우주항공·방산 소재 생산현장 르포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21010007176>
16. 한국경제 — 세아, 美에 특수합금 공장...고부가 우주·항공 소재 공략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63135i>
17. 갯뉴스 — 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 중국산 특수강 봉강 반덤핑 제조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4266>
18. 스마트에프엔 — 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 중국산 특수강 봉강 반덤핑 제조 — <https://www.smartf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341>
19. 글로벌이코노믹 — 세아베스틸, 中 특수강 봉강 반덤핑 제조...소재 주권 회복 — [https://www.g-enews.com/article/Industry/2025/08/2025080409305578587bdb7041ec\\_1](https://www.g-enews.com/article/Industry/2025/08/2025080409305578587bdb7041ec_1)
20. 매일일보 — 세아베스틸지주, 지난해 영업이익 1024원 95.6%↑ —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35324>
21. 뉴스와이어 — 세아베스틸지주, 2024년 연간 잠정 실적 발표 —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05600>
22. 인뉴스24 — 세아베스틸지주 작년 영업이익 1024억...전년 대비 95.6%↑ — <https://www.inews24.com/view/1937479>

## 심층 분석 보고서: 세아창원특수강-총무

---

23. 중소기업신문 — 세아창원특수강 해외사업에 달렸  
다 —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300>
24. 딜사이트 — 세아베스틸지주, 자회사 부진에 수익성 뚝 — <https://dealsite.co.kr/articles/130589>
25. 철강금속신문 — 세아창원특수강, 고부가 제품 및 최적 생산으로 업황 극  
복 —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180>
26. 경남도민일보 — 세아창원특수강 적현벌에 등지 든 특수강 공  
장 —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14564>
27. 인사이트코리아 — [Beyond 철강☺] 이순형 세아 회장, 우주항공·해상풍력 혁신 주  
도 —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548>
28. 세아그룹 블로그 — 2025 세아그룹 10대 뉴스로 돌아본 세아의 한  
해 — <https://www.seah.co.kr/pr/blog/seah-2025-top10-news>
29. 블라인드 — 세아창원특수강 기업 리뷰 — <https://www.teamblind.com/kr/company/세아창원특수강/reviews>
30. 뉴스앤잡 — [직무가이드] 총무 - 전사적 행정 지원을 총괄하는 책임  
자 — <https://www.newsjob.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48>